

한국 사람과 역사를 조롱하는 유니클로 광고

신석준 《신의한술TV》

유니클로의 요상한 광고

안녕하세요. 《신의한술》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7월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기름을 부었던 유니클로가 또 유튜브와 TV를 통해 요상한 광고를 내보냈습니다.

많이 보셨을 텐데요, 나이가 지긋한 여성과 어린 여성이 나와 대화를 나눕니다. 98세의 여성은 “패션 콜렉터” 이리스 아펠 Iris Apfel이고 13세의 여성은 “패션 디자이너” 케리스 로저스 Kheris Rogers라고 합니다. “제 나이 때는 어떻게 입으셨어요?” “맙소사! 80년도 더 된 일을 기억하냐고?”

바로 이 대답이 문제였습니다. 영어로 된 광고에서는 “I can't

remember that far back!” (“그렇게 오래된 일은 기억할 수 없어!”)라고 되어 있고, 일본어판 광고에는 자막에 “昔のことは、忘れたわ。” (“옛날 일은 잊어버렸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 광고에서만 유독 “80년도 더 된 일을 기억하냐고?”라는 자막을 넣은 것입니다.

유니클로의 한국 법인 FRL코리아의 해명은 이렇습니다.

나이 차가 크게 나는 두 사람 모두 후리스를 즐겨 입을 수 있다고 표현하고자 한 것이다. 미국, 일본 편과 달리 80년을 넣은 이유도 명백하고 직관적으로 나이 차를 알 수 있도록 자막을 넣은 것이다.

우리가 너무 민감한 걸까요? 유니클로 광고는 정말 아무 의도가 없을까요? 한술 떠 보겠습니다.

강제징용에 끌려간 두 할아버지

집안 이야기 조금 하겠습니다. 제 고향은 충북 옥천군 청성면 대안리입니다. 아주 깡촌입니다. 제가 1970년생인데도 어렸을 때 전기가 안 들어왔으니까요. 일제강점기 말에는 더했을 텐데, 그 깡촌에도 강제징용의 마수가 뻗쳐 왔습니다.

제 할아버지와 바로 아래 동생이 일제강점기 말 강제징용으로 끌려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버지가 할머니 배 속에 있을 때 끌려가셔서 4살 넘어서 돌아오셨다니까, 아마 1941년이나 1942년쯤 끌려가셨다가 1945년 해방되고 나서 돌아오신 듯합니다. 참고로 그 아래 두 동생도 불과 5년 뒤 한국전쟁 때 군인으로 징집되었고, 막내 종조할아버지는

1952년 장단 전투에서 전사했습니다.

뭐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돈 없고 뺨 없는 한국 사람 누구라도 집안 내력을 조금만 뒤져 보면 나오는 그런 사연이지요.

할아버지는 워낙 말이 없어서 평생 그때 얘기를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의 동생, 즉 종조從祖께서는 저 어렸을 때 일본말도 가르쳐 주시고, 징용 끌려갔을 때 얘기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적지 않은데, 다음 기회로 미루겠습니다.

종조할아버지가 가장 싫어했던 말이 “후페이센징”이었습니다. 일본말로 “ふていせんじん”이라고 씁니다. “불령선인不逞鮮人”, 즉 “말 안 듣는 조선인”이란 뜻입니다. 징용 끌려갔을 때, “왜놈덜이 심심하면 조선 사람 두들겨 패면서” 하던 말이랍니다.

유니클로 광고를 보니까 종조할아버지께서 술만 드시면 해 주던 말이 생각납니다.

석준아, 나중에 커서 말여, 왜놈덜 허고 장사라도 허게 되면 말여, 양 길 보기를 조심 혀. 왜놈덜은 겘으로 하는 말 허고 속마음 허고 다르단 말여. 왜놈덜 다테마에를 민다가는 큰코다치는 겨. 혼네를 알아야 혀. 혼네를.

제가 아직도 “다테마에_{建て前}”(겘으로 하는 말)이니 “혼네_{本音}”(속마음)라는 어려운 일본말을 기억할 만큼 여러 번 얘기하셨습니다. 워낙 긴 이야기고 기억도 분명치 않아서 요약해 보겠습니다.

- 1) ‘왜놈덜’은 속마음을 숨기고 슬쩍 시비를 건다.

2) 조선 사람들이 바로 대들면, ‘왜 이렇게 민감해, 조선 놈들은 역시 미개해’라며 슬쩍 넘어간다.

3) 대들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왜 이렇게 멍청해, 조선 놈들은 역시 미개해’라며 더 심한 도발을 하고, 계속 가만히 있으면 함부로 대하고, 나중엔 아예 깔아뭉갠다.

4) 이것이 ‘왜놈덜’ 특유의 ‘양 길 보기’다.

5) ‘왜놈덜’은 ‘다떼마에’ 속에 음흉한 의도를 숨기고 있으니 ‘흔네’를 재빠르게 알아채지 않으면 천한 신세를 면치 못한다.

종조할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유니클로 광고의 ‘흔네’를 알아보겠습니다. 또 한술 떠 보겠습니다.

세 가지 숫자에 깔린 유니클로 광고의 ‘흔네’

유니클로는 한국 광고에만 유독 “80년도 더 된 일을 기억하냐고?”라는 자막을 넣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유니클로 광고에는 분명히 검은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일단 눈에 띄는 것은 “80년”입니다. 그러나 좀 세밀하게 보면, 80이라는 숫자만이 아닙니다. 80, 98, 13, 이렇게 세 가지 숫자에 음흉한 속내를 숨겨 놓았습니다. 악마는 언제나 디테일에 숨어 있습니다.

일단, 왜 하필 “80년”일까요? 지금부터 80년 전인 1939년은 일제가 「국가총동원법」을 근거로 강제징용을 본격화한 때입니다. 이 법은 1938년 5월 5일부터 시행한 전시 통제법입니다. 일제는 1938년 「공장·사업장관리령」, 1941년 「국민근로보국협력령」, 「신문지 등 게재제한

령」 등 세밀한 후속 법령까지 제정하여 식민지 조선의 인력과 물자를 쥐어짚습니다. 「국가총동원법」은 식민지 조선에서는 1939년에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하필!

“98”에도 숨은 의도가 있습니다. 광고에 등장하는 패션컬렉터의 나이는 98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 10월 30일 한국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판결에 승소한 피해자 가운데 유일한 생존자였던 이춘식 할아버지가 98세입니다. 하필!

“13”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광고에 나오는 패션 디자이너의 나이는 13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확인된 가장 어린 종군위안부 피해자의 나이가 13세입니다. 하필!

세 번이나 반복되는 ‘하필!’ 정말 아무 연관도 없을까요? 반복되는 우연 속에는 필연이 숨어 있게 마련입니다. 제가 볼 때 유니클로 광고는 ‘뭔가 잘 아는 놈’이 코드를 맞추어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네티즌들이 문제로 삼았기에 다행이지, 그러지 않았다면 ‘역시 한국 놈들은 미개해’라며 깔깔댔을 것입니다. 그러고는 차츰차츰 정도가 더 심한 도발을 하고, 마침내 한국을 깔아뭉갠 것입니다.

이번처럼 문제로 삼으면 슬쩍 물러납니다. 어떻게든 이유를 대고, 책임을 우리에게 떠넘깁니다. ‘아 왜 이렇게 민감해. 피해망상 아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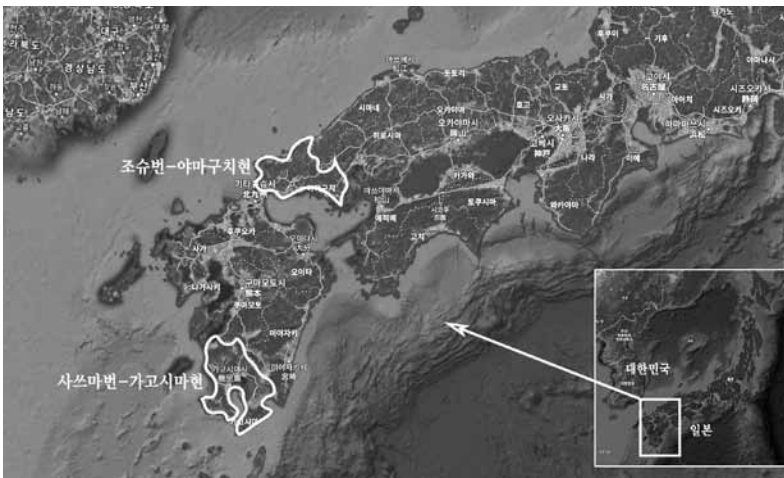
유니클로 광고의 “흔네”는 분명합니다. 80, 98, 13이라는 세밀한 디테일 속에 검은 의도를 숨겼습니다. ‘너희들 이런 것까지는 모를걸? 한국인은 우리에게 식민 통치를 받았던 미개한 족속이다. 불매운동이니 뭐니 까불지 말고 꿇어라.’

이런 자들이 파는 물건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돈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150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마지막

으로 한술 떠 보겠습니다.

조선에서 번 돈으로 조선을 집어삼킨 조슈번-사쓰마번

일본 우익의 양대 뿌리는 조슈번長州藩과 사쓰마번薩摩藩입니다. 지도 한번 보시죠.



조슈번은 한반도와 가장 가깝고 역사적으로 한반도와 교류가 많았던 곳입니다. 사쓰마번 또한 한반도와 인연이 많은 곳입니다. 금강포구에서 무동력선을 띄우면 도착하는 곳이 사쓰마라고 합니다.

조슈번과 사쓰마번은 1592년 임진왜란 때부터 우리와 악연이 있습니다. 조슈번은 모리 테루모토를 대장으로 7군 3만 명을 파견했고, 사쓰마번은 시마즈 요시히로를 대장으로 4군 15,000명을 파견했습니다. 모리 테루모토는 집결 시간에 지각해서 험한 지역인 강원도 정벌을 맡

았다고 합니다. 시마즈 요시히로는 그 7년에 걸친 전쟁의 마지막 전투였던 노량해전(1598년 11월 29일)에서 이순신 장군과 싸웠던 일본군 대장이었습니다.

임진왜란 이후 조슈번은 주로 쓰시마를 지렛대로 조선과의 밀무역 을 통해 엄청난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사쓰마번은 정유재란 때 시마즈 요시히로가 끌고 간 남원의 도공들이 만든 도자기를 서양에 팔았습니다. 네덜란드 동인도회사가 한 해에만 57,000여 개의 도자기를 수입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고, 18세기와 19세기에 유럽에 팔아넘긴 도자기가 100만 개가 넘습니다. 지금 가치로 5조 원이 넘는 돈입니다.

조슈번과 사쓰마번은 조선에서 벌어들인 자금을 기반으로 일본 우익의 뿌리를 형성했습니다. 그 힘으로 메이지유신을 단행하여 일본의 권력을 장악했고, 마침내 조선을 손아귀에 넣었습니다.

‘너무 심한 비약 아니냐?’ 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길게 이야기할 필요 없이 뒤에 나오는 표 먼저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시기 어려울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기분 나쁘게도 유니클로 본사는 옛날 조슈번인 야마구치현에 있습니다. 하필!

불매를 넘어 퇴출이 마땅한 유니클로

유니클로는 지난 7월 망언에 대해서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사과한 것은 엉뚱하게 유니클로 한국 회사입니다. 망언 당사자인 오카자키 다케시는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유니클로의 본사인 페스트리테일링도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구한말 조선 침략을 주도한 조슈번과 사쓰마번의 인물들

출신	이름	주요 내용
조슈번	이토 히로부미	총리, 조선통감, 을사늑약 체결 당사자
	이노우에 가오루	내무대신, 동학혁명 때 조선공사, 을미사변 기획
	야마카타 아리토모	육군 원수, 총리, 동학혁명 때 조선주둔군 사령관
	가쓰라 다로	한일강제병탄 때 총리, 가쓰라-태프트 밀약 당사자
	데라우치 마사타케	초대 조선총독, 조선인 2등 국민 법제화
	미우라 고로	조선공사, 을미사변 실행
	오시다 요시마사	1894년 경복궁 무단 침공, 아베신조 친외교조부
사쓰마번	사이고 다카모리	삿초동맹 당사자, 메이지유신 주역, 정한론 주장
	오오야마 이와오	러일전쟁 때 육군 원수
	가와카미 소로쿠	육군 참모차장, 동학군 살육 명령
	도고 헤이하치로	제독, 러일전쟁 때 쓰시마 해전 지휘
	마쓰카타 마사요시	일본은행 설립, 조선 경제 침탈 숨은 주역

이번에 문제가 된 광고에 대해서도 겉으로만 사과하고 한국에서만 중단했을 뿐입니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여전히 광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유니클로는 그런 회사입니다.

같은 물을 먹어도 소가 마시면 젖이 되지만 뱀이 먹으면 독이 됩니다(牛飲水成乳 蛇飲水成毒). 유니클로 같은 기업이 파는 물건을 사는 것은 내 손으로 칼을 갈아 강도에게 넘겨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유니클로 광고는 한국 사람과 역사를 조롱하는 것입니다. 자기 물건을 사 주는 사람을 조롱하는 자들은 불매를 넘어 퇴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시대